

중세한국어 [자격]의 ‘로’ 구문에 대한 연구*

정혜린** · 백채원***

[초 록]

본고는 중세한국어의 조사 ‘로’에 대하여 살피되, 특히 [자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로’의 특성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로’는 함께 사용되는 서술어에 따라 문장에서 나타내는 의미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조사이다. 본고는 [자격]의 의미를 가지는 ‘로’의 특성을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세한국어에서 [자격]을 나타내는 ‘로’ 구문의 특성을 논하였다. 그리고 [자격]과 관련지어 함께 논의될 수 있는 구문도 살폈다. 이 논의를 통해 중세한국어 시기 ‘로’의 사용 양상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구원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제어: ‘로’, 부사격조사, 자격, 본유자격, 결과자격, 중세한국어, 중세국어
‘ro’, Adverbial Particle, Qualification, Innate Qualification, Resultant Qualification,
Middle Korean

1. 서론

본고는 중세한국어의 조사 ‘로’에 대하여 살피되, 특히 [자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로’의 특성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한국어의 격 조사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주격, 대격, 속격 조사 등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부사격 조사의 세세한 용법을 기술한 논의는 여전히 드물다. 이에 본고는 그동안 활발히 논의되지 않았던 부사격 조사의 특성에 집중하되, 특히 ‘로’에 초점을 두어 중세한국어 ‘로’ 구문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로’는 함께 사용되는 서술어에 따라 문장에서 나타내는 의미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조사이다. 본고는 ‘로’의 여러 의미 중에 [자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로’를 살핀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우리는 ‘로’의 사용 양상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2장에서는 [자격]의 ‘로’를 나타내는 사전 기술을 검토하고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자격]의 의미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자격]의 ‘로’ 구문이 어떠한 통사 의미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논할 것이다. [자격]과 혼동될 수 있는 ‘로’ 구문도 함께 논한다. 3장에서는 중세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자격]의 ‘로’로 언급된 예를 재검토하고, 15~16세기 자료에서 [자격]의 ‘로’가 사용된 예를 제시한다. [자격]의 ‘로’와 혼동될 수 있는 중세한국어 구문에 대해서도 논한다. 4장에서는 [자격]의 ‘로’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구문을 언급한다. 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여 정리한다.

2. 현대한국어의 [자격]의 ‘로’ 구문

2.1. 사전 기술 재검토

중세한국어의 예를 검토하기에 앞서, 현대한국어 사전에서 기술한 [자격]의 메타의미와 그 기술을 확인한다. 본고는 <연세한국어사전>(이하 <연세>)을 대표적으로 검토하였다. <연세>는 ‘로’의 의미를 [방향, 지향점], [방식, 양상], [재료, 도구, 수단, 방법], [변화, 변성], [자격, 신분, 명성], [판단], [원인, 이유]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는데, 각각의 의미를 나타내는 ‘로’가 어떤 서술어와 함께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그 의미를 세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참고가 된다. <연세>에서 제시한 ‘로’의 뜻풀이 중 ‘자격, 신분, 명성’을 뜻하는 것으로 기술된 예를 아래에 보인다.

(1) <연세>의 ‘로’ 기술

- ① [신분, 지위, 자격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 ‘~의 신분/지위/자격을 가지고’의 뜻을 나타냄.

관련어: 로서, 참고: ‘삼다/태어나다/부르다’류로 표현되는 서술어와 함께 쓰임.)

가. 그녀는 선천적으로 출꾼으로 태어난 듯 싶었다.

나. 누군지 그를 남편으로 맞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다. 엄 씨는 나를 깍듯이 형님으로 받든다.

라. 한국인들이 사는 땅으로 가서 한국말로 지껄이고 한국

1) ①에서는 ‘삼다/태어나다/부르다’가 대표적 서술어로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 예에서 ‘삼다’는 제시되어 있지 않고, ‘부르다’는 (②㉠)의 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나는 10년 동안 교사로 재직하였다’ 등과 같이 ‘재직하다’, ‘있다’ 등의 동사 또한 [자격]의 ‘로’를 취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동사는 ①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재직하다’ 등과 함께 쓰이는 [자격] 명사구는 수의적 성분이어서 포함시키지 않은 듯하다. [자격]의 의미 유형에 따른 필수성의 정도는 후술된다.

인으로 행세했어요.

- ② ㉠ [명성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 ‘~이라고 알려져서’의 뜻을 나타냄.

참고: ‘통하다/소문나다/유명하다’와 같은 말과 함께 쓰임.

가. 그의 말에 의하면 이 곳 사벌 평야는 고래로 꼭창 지대로 유명한 곳이었다.

나. 원래 남양 고을은 예전부터 소금이 많이 나기로 소문난 고장이다.

다. 그의 아들은 버릇없는 아이로 통하고 있었다.

라. 이곳은 옛날부터 아름다운 고장으로 이름나 있었던 듯 싶다.

- ㉡ [명칭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 ‘~이라고’의 뜻을 나타냄.
관련어: 로서, 참고: ‘부르다/칭하다’류로 표현되는 서술어와 함께 쓰임.

가. 그대는 내가 꽃으로 부르기 전에는 꽃이 아니었다.

나. 허락하신다면 저도 당신을 형님으로 부르겠습니다.

다. 태조께서는 고구려의 뒤를 이어 만주땅을 되찾겠다고 국호를 고려로 칭했다.

- ③ [어떠한 자격 또는 요인임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 ‘~의 요인/자격으로 작용하여’의 뜻을 나타냄.

참고: ‘다가오다/다가서다’와 같은 말과 함께 쓰임.

가. 그들을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참기 어려운 고통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나. 지금도 봄의 예감은 내게 있어서 기쁨보다는 슬픈 빛깔로 다가선다.

- ④ ‘~를, 그러한 것으로서’의 뜻을 나타냄. ‘들다/따지다’류로 표현되는 서술어와 함께 쓰임.

가. 그런 것들을 예로 들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나. 오히려 가문으로 따진다면 이쪽이 훨씬 짱짱하다.

다. 30년이라는 세월은 전체 인생으로 따질 때 짧은 것일 수도 있다.

①은 자동문 ‘NP₁ [대상]이 NP₂ [자격]로 V (태어나다, 행세하다)’, 타동문 ‘NP₁ [행위자]이 NP₂ [대상]를 NP₃ [자격]로 V (맞다, 받들다)’ 등이 사용된 예이다. 이와 같은 구문은 전형적인 [자격]을 나타내는 구문이라 볼 수 있는데, 이 구문이 가지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 명사구가 나타내는 속성은 대상 명사구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속성이다. 예를 들어 (①가)의 ‘그녀’와 ‘춤꾼’, (①나)의 ‘그’와 ‘남편’, (①다)의 ‘나’와 ‘형님’, (①라)의 숨겨진 주어와 ‘한국인’과 같은 예에서 후자의 명사구는 모두 전자의 개체가 두드러지게 가지고 있는 속성이며, 그 속성은 전자의 개체를 대표한다.

둘째, 대상 명사구와 자격 명사구 사이에는 ‘A는 B이다’의 관계가 성립한다.²⁾ (①가)에서 ‘그녀는 춤꾼’이고 (①나)에서 ‘그는 남편’이며, (①다)의 엄 씨에게 ‘나는 형님’이다. (①라)의 경우 서술어 ‘행세하다’의 특성상 ‘그는 한국인이다’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①가)~(①다)와 같은 구문이 고착화되면서 두 명사구가 완전히 ‘A는 B이다’ 관계가 아닌 (①라)와 같은 구문도 가능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또는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그가 스스로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생각하며 행세하였음을 고려하면 이 또한 ‘A는 B이다’의 의미 관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상 명사구와 자격 명사구는 유정물이다. ‘자격’이라는 것이 어떤 유정물의 일정한 신분 및 지위를 나타냄을 고려하면, ①과 같이 대상 명사구와 자격 명사구가 모두 유정물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넷째, ‘로서’와의 대치가 비교적 자유롭다. ①의 예들의 ‘로’를 ‘로서’로 대체하여도 비교적 자연스러운 문장을 이룬다.

그런데 네 가지 특성을 모두 만족시켜야 ‘NP로’가 [자격]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와 같이 대상 및 자격의 명사구가 무정물이더라도 ‘NP로’는 [자격]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②㉠)은 ‘NP₁ [대상]

2) 엄정호(1993, p. 62)에서는 이를 [지칭]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이 NP₂ [자격]로 V'의 예로, 서술어에는 ‘유명하다, 소문나다, 통하다, 이름나다’ 등과 같은 동사가 사용되어 있으며, (㉔가), (㉔나), (㉔라)는 모두 부정명사를 주어로 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격]은 ①과 같이 유정물의 신분 및 지위와 관련되지만, NP₂가 NP₁의 두드러진 속성을 나타내고 두 명사구 사이에 ‘A는 B이다’의 관계가 성립된다면 부정명사 또한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㉔가)의 ‘사별 평야와 ‘곡창지대’, (㉔나)의 ‘남양 고을’과 ‘소금이 많이 남’, (㉔다)의 ‘그의 아들’과 ‘버릇없는 아이’, (㉔라)의 ‘이곳’과 ‘아름다운 고장’ 등에서 후자의 명사구는 전자의 명사구를 대표하는 속성이다. NP₁이 가지고 있는 여러 속성 중 서술자 입장에서 가장 두드러진다고 생각되는 특성, 즉 NP₁을 대표할 수 있는 일반적인 특성이 바로 NP₂인 것이다. 그리고 두 명사구 사이에 ‘A는 B이다’와 같은 의미 관계가 성립한다. (㉔가)에서 ‘사별 평야는 곧 곡창지대’이며, (㉔나)의 ‘남양 고을은 소금이 많이 나’며 (㉔다)에서 ‘그의 아들은 버릇없는 아이’이고, (㉔라)의 ‘이곳은 아름다운 고장’인 것이다.

(㉕)은 ‘NP₁ [행위주]이 NP₂ [대상]를 NP₃ [자격]로 V’ 구문으로, 서술어에는 ‘부르다’ 등과 같은 命名 및 呼名 동사가 사용된다. NP₂와 NP₃의 관계는 (㉔)의 예들과 유사하다. (㉕가)의 ‘그대’와 ‘꽃’, (㉕나)의 ‘당신’과 ‘형님’, (㉕다)의 ‘국호’와 ‘고려’의 관계에서 후자의 명사구는 전자의 명사구를 대표할 수 있는 특징이라는 점에서, 대상 명사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속성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대는 꽃’이며, ‘당신은 형님’이고 ‘국호가 고려’가 성립됨에서 알 수 있듯, 두 명사구는 ‘A는 B이다’의 관계를 이룬다. 이와 같은 구문의 ‘로’는 ‘이곳은 옛날부터 아름다운 고장이라고 이름나 있었던 듯싶다’, ‘국호를 고려라고 칭했다’ 등과 같이 ‘라고’로 나타날 수도 있다.

③은 ‘NP₁ [대상]이 NP₂ [자격]로 (NP₃ [경험주]에게) V’ 구문이다. 자격 명사구가 대상 명사구를 대표하는 속성이라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구

문들과 유사하다. 그런데 ②㉠과 비교해 보았을 때, ③의 구문은 특정한 경험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②㉠과 조금 다르다. ②㉠의 경우 어떤 대상이 특정한 속성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라면, ③은 특정 인물에게만 그 속성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③가의 ‘그들을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것’과 ‘고통’, ③나)의 ‘봄의 예감’과 ‘슬픈 빛깔’에서 전자의 명사구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에게 후자의 자격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후자의 명사구는 특정 인물(이 경우는 화자)에게만 두드러진다고 주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성인 것이다. 두 명사구의 동격 관계도 제한된 경험주로 한정한다면 성립할 수 있다. 그들을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것이 참기 어려운 고통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그러한 것이며, 봄의 예감이 슬픈 빛깔이라는 것 역시 나의 경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④는 ‘들다’와 ‘파지다’가 사용된 예이다. ④가)는 ‘들다’가 사용된 ‘NP₁ [행위자]이 NP₂ [대상]를 NP₃ (예)로 들다’ 구문이다. 무엇을 예로 드는 행위가 어떤 대상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그 대상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는 것임을 고려하면, ‘대상’과 ‘예’ 사이에는 앞서 제시한 ①~③의 두 명사구가 나타내는 의미 관계와 유사한 면이 있다. ④가)에서 ‘그런 것’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인 것이다. 또한 두 명사구 사이에는 ‘그런 것들이 예이다’와 같은 관계도 성립한다. 다만 ‘들다’의 예로 제시된 문장에서는 ‘예, 사례, 보기’ 등의 추상 명사가 ‘로’를 취하여 무정물의 [자격]을 나타냈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두 명사구의 관계가 전형적인 [자격]의 구문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자격]의 구문으로 함께 다룰 수 있을 것이다. ④나), ④다)는 ‘파지다’가 사용된 예로, ‘NP₁ [행위자] NP₂ [대상] NP₃로 파지다’ 구문이다. 그런데 ‘파지다’의 어휘 의미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하거나 헤아리다”(〈연세〉)의 의미임을 고려하면, 이때 NP₃는 [자격]이라기보다 [기준]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

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④나)는 여러 기준 중에서 ‘가문’을 기준으로 하여 이쪽과 상대를 비교하는 것이며, (④다)는 ‘전체 인생’을 기준으로 하여 30년이라는 세월을 헤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④가)의 ‘로’는 [자격]으로 보지만, (④나), (④다)의 ‘로’는 [기준]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한편 ①과 (②㉠)은 관련어로 ‘로서’가 제시되어 있지만 (②㉠), ③, ④는 관련어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②㉠)의 ‘로’를 ‘로서’로 대치하면 상당히 어색하다. ‘^{??}그대는 내가 꽃으로서 부르기 전에는...’, ‘^{??}저도 당신을 형님으로서 부르겠습니다’, ‘^{??}국호를 고려로서 정했다’ 등은 자연스럽게 읽힌다. 오히려 (②㉠)의 ‘로’가 ‘로서’로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사벌평야는 곡창 지대로서 유명한 곳이었다’, ‘그의 아들은 버릇없는 아이로서 통하고 있었다’ 등은 상대적으로 자연스러움을 알 수 있다.³⁾ ③, (④가) 역시 ‘참기 어려운 고통으로서 다가오다’, ‘봄의 예감이 슬픈 빛깔로서 다가서다’, ‘예로서 들다’ 등이 비교적 자연스럽다. 한편 (④나), (④다)의 경우 관련어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④나), (④다)의 ‘로’는 [기준]의 ‘로’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문으로써 따진다 면...’, ‘30년이라는 인생은 전체 인생으로써 따질 때...’ 등과 같이 ‘로’를 ‘로써’로 대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⁴⁾

지금까지 <연세>에서 [자격]의 ‘로’의 의미 기술 및 구문을 검토하였다. <연세>에서 기술된 [자격]의 ‘로’ 중에서 ①의 ‘NP로’는 사람의 신분 및 지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가장 전형적인 [자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②㉠)의 ‘NP로’는 어떠한 개체의 이름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이 역시

3) 다만 *남양 고을은 소금이 많이 나기로서 소문난 고장이다’는 매우 어색한데 NP₂가 ‘-기, -음, -움’ 등의 절로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2.3과 3.3에서 다시 언급한다.

4) [기준]의 ‘로’가 [수단] 및 [방법]을 나타내는 ‘로써’로 대치가 가능한 것은 넓은 의미에서 [기준]은 [수단] 및 [방법]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2.3.3에서 다시 논한다.

전형적인 [자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②㉠)의 ‘NP로’는 일반적으로 두드러진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고, ③은 특정인에게만 두드러진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가 더 전형적인 [자격]에 가깝다. (④가)의 ‘그런 것을 예로 들다’는 유정물이 아닌 무정물의 지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비교적 덜 전형적이라 할 수 있으며, (④나), (④다)의 ‘NP로 따지다’의 ‘NP로’는 [기준]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자격]으로 보기 어렵다.⁵⁾

2.2. [자격]의 의미

다음으로 [자격]의 메타의미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를 살핀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 의미역을 다루며 [자격]의 의미를 논의하여 왔는데, 이와 관련하여 홍재성 외(2002)와 이선웅(2012)의 논의가 참고된다. 홍재성 외(2002)에서 제시한 한국어의 의미역 중 [자격]의 의미와 관련되는 것은 “결과상태역”(resultant state)이며 “동사가 인물의 자격 또는 물질의 성질이나 용도의 변화를 기본 의미로 가질 때, 그러한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논항이 갖는 의미역”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는 사전이나 선행 연구에서 [자격]과 [변성]으로 다루어져 온 ‘로’와 관련된다. (2)는 “결과상태역” 중 [자격]과 관련되는 동사 ‘삼다’의 예이다.

(2) 교장은 철수를 교사로 삼았다.

5) 이희자 · 이종희(2010)의 『어미·조사 사전』에도 ‘로’가 기술되어 있는데, <연세>의 기술 중 ①, ②의 기술만을 취하여 뜻풀이로 제시하였다. <연세>에서 “~의 요인/자격으로 작용하여”, “~를, 그러한 것으로서”로 기술된 의미는 『어미·조사 사전』에서는 ‘로’의 의미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

‘삼’은 인물의 자격을 변화시키는 것을 기본 의미로 하는 동사인데, ‘교사로’는 그러한 변화의 결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2)의 ‘로’는 서술어의 행위의 결과로 대상이 획득하는 자격을 나타낸다.

한편 이선웅(2012)에서는 아래와 같은 유형의 문장들이 “결과상태역”이 포괄하지 못하는 [자격]의 경우라고 보아 “자격역”을 추가로 설정하게 된다.

(3) 철수가 신입생 환영회에 교사로 참석했다.

(3)의 ‘교사로’는 행위의 결과를 보여주는 명사구가 아니라, 주어가 그 행위의 상적 특성으로서의 지속시간 동안 어떤 자격으로 존재했는가를 보여주는 명사구이다. 이선웅(2012, p. 237)는 “자격역”(eligibility)을 “술어가 의미하는 어떤 행위의 지속시간 동안 어떤 자격으로 그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의미역”으로 정의하였다.

본고는 의미역으로서의 “결과상태역”의 설정이나 “자격역”의 추가 설정에 대한 논의는 미루고, [자격]으로 다룰 수 있는 한국어 문장들의 유형 중에 홍재성 외(2002)와 이선웅(2012)가 제시한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 [자격]을 정의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가 정의하는 [자격]의 개념은 아래와 같다.

(4) 자격: 술어가 의미하는 어떤 행위의 지속시간 동안 주어나 목적어가 어떤 ‘신분, 지위, 두드러진 속성’으로 있는 상태에서 그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냄[본유자격]. 또는 술어가 의미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결과로, 주어나 목적어가 어떤 ‘신분, 지위, 두드러진 속성’을 획득하는지를 나타냄[결과자격].

이제 [자격]은 [본유자격]과 [결과자격]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아래는 [자격]의 의미를 갖는 ‘로’의 문장들이다.

- (5) 가. 이 교장은 세종고등학교에서 인사권자로 (있으면서) 철수를 교사로 삼았다. (‘학교의 인사권자로’: 본유자격, 수의적; ‘교사로’: 결과자격, 필수적)⁶⁾
 나. 학생들은 철수를 지도교사로 ({삼아/하여}) 행사장에 갔다. (‘지도교사로’: 결과자격, 필수적)⁷⁾
 다. 철수가 교사로 선발되었다. (‘교사로’: 결과자격, 필수적)
 라. 철수가 훌륭한 교사로 통하였다. (‘훌륭한 교사로’: 본유자격, 필수적)

(5)와 같이 ‘삼-’이나 ‘선발되-’(‘하-’)와 같이 행위의 결과로서 어떤 대상에 자격을 부여하거나 인정하는 동사, 혹은 ‘통하-’(‘있-’)와 같이 일정한 지속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라면 [자격]의 ‘로’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이들은 제시된 예에서 알 수 있듯 [자격]의 ‘로’ 명사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대체로 [결과자격]으로서의 ‘로’는 문장에서 필수적 요소로 나타난다. 서술어가 자격의 변화를 전제로 하고, 변화 후 얻게 되는 자격 논항을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본유자격]으로

6) (5)의 ‘NP로’들은 필수적인 경우도 있고 수의적인 경우도 있다. 명사구가 술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지를 분명히 결론 내리기 어려운 예도 존재하는 듯하다. 각 명사구가 술어의 논항이나 비논항이나 하는 판단은 여기에서 하지 않고, 필수적 요소에 가까운지 수의적 요소에 가까운지 그 정도를 판단하여 표시하였다. 이선웅(2012)에서는 의미역이 서술어의 논항이든 비논항이든 부여될 수 있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자격]을 의미역으로서 다룬 것은 아니지만 ‘NP로’가 필수적 요소이든 수의적 요소이든 [자격]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

7) ‘철수를 지도교사로’는 수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철수를’만 나타날 수는 없다. 이에 대해서는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한다.

서의 ‘로’는 필수적이기도 하고 수의적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하여 [자격]의 ‘로’의 특징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현대한국어 [자격]의 ‘로’의 의미와 그 특징

유형 \ 특성	자격 명사구의 의미	대상 명사구와 자격 명사구의 의미 관계	대상 명사구의 유정성	자격 명사구의 유정성	‘로서’와의 대치
① ⁸⁾ (그녀는 춤꾼으로 태어났다.)	주어나 목적어의 신분 및 지위 [본유자격] [결과자격]	A [대상]는 B [자격]이다	유정	유정	가능
②㉠ (이곳은 곡창 지대로 유명한 곳이다)	주어의 명성 (일반적으로 두드러진 속성) [본유자격]	A [대상]는 B [자격]이다	유정 무정	유정 무정	일부 가능
②㉡ (그대는 내가 꽃으로 불렀다)	목적어의 명칭 [결과자격]	A [대상]는 B [자격]이다	유정 무정	유정 무정	불가 능
③ (그것은 참기 어려운 고통으로 다가왔다)	주어의 속성 (특정 경험주에게만 두드러진 속성) [결과자격]	A [대상]는 B [자격]이다	유정 무정	유정 무정	가능
④ (그런 것들을 예로 들다)	목적어의 속성 [결과자격]	A [대상]는 B [자격]이다	(유정) ⁹⁾ 무정	(유정) 무정	가능

8) (1)의 <연세>의 예문 유형 번호이다.

9) 사전 등에 제시된 ④ 유형의 예문에는 보통 대상 명사구와 자격 명사구가 무정물로 나타나 있으며 특히 자격 명사구에는 무정물이 오는 경우가 많으나 유정물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듯하다.

2.3. [자격]과 혼동될 수 있는 ‘로’ 구문

2.3.1. [방식]

다음으로 [자격]과 혼동될 수 있는 여러 ‘로’ 구문을 살핀다. [자격]과 가장 혼동되기 쉬운 것은 [방식]의 ‘로’ 구문이다.

- (6) 가. 신선이 되면 노인으로 낚시하며 늙어가리라.
 나. 원래 남양 고을은 예전부터 소금이 많이 나기로 소문난 고장이다.
- (7) 가. 대원들이 나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
 나. 그는 돈을 탕진하고 {의기소침한 태도로/허름한 차림으로 /빈손으로} 돌아왔다.

(6가)의 ‘로’는 신분과 관련되는 예이며, (6나)의 ‘로’는 자격의 대상이 되는 주어나 목적어의 두드러진 속성과 관련되는 예이다.¹⁰⁾ 이에 반해 (7)의 ‘로’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어떠한 [대상](주어 혹은 목적어)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자격]과 혼동될 여지가 있다. 본고는 (7)의 ‘로’를 [방식]으로 다루고자 하는데¹¹⁾ 이는 [자격]의 ‘로’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6)과 같은 [자격]의 의미 영역에 해당하는 속성은 대상의 여러 속성 중 강하고 두드러지며, 항구적인 것에 가깝거나 오래 지속되는 성

10) (6나)는 [원인]과의 혼동 문제도 있어 2.3.2에서도 다시 다룬다.

11) 무라타 히로시(2005)에서는 ‘상태의 존재 양상’을 나타내는 ‘양태’의 예로 ‘未來世에 스이며 거집들히 상네 고죽흔 므스므로 阿難이 恩德을 念하야 일후를 일크라 供養 恭敬 尊重 讚嘆하야 굿디 아니케 흥디니(未來世中 若有比丘尼及諸女人 常當至心念阿難恩)’<月釋 10:22b>를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연세>의 용어인 ‘방식, 양상’에 착안하되, 다른 범주와 혼동될 우려 때문에 ‘양태’나 ‘양상’이라는 용어 대신 [방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질을 가지며 이는 (6)에서는 대상의 신분 및 명성과 관련되는 특성으로 나타났다. 반면 (7)의 [방식]의 ‘로’는 대상 명사구가 어떠한 행위를 어떤 모습으로 하는지를 묘사하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대부분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되며 대상의 본질과 관련되는 항구적이고 두드러진 속성으로 볼 수 없다.¹²⁾ 또 [방식]의 ‘로’는 대상의 속성과 관련되는 경우도 있지만,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다. (7가)의 ‘강제로’는 대상(주어)의 속성과 관련이 없다. 둘째, [자격]의 경우에는 자격의 대상이 되는 주어 NP₁과 자격을 나타내는 NP₂가 ‘NP₁ (대상)이 NP₂ (자격)이다’와 같은 문장을 이루는 것이 대부분 자연스럽다.¹³⁾ 그러나 [방식]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7가)에서 ‘대원들이 강제이다’는 자연스럽지 않다. 마지막으로 (7)과 같은 [방식]의 ‘로’는 행동을 ‘어떤 모습’으로 하는 것이므로, ‘NP₁이 NP₂로 VP’를 ‘NP₁이 VP {-음을/기름/는 것을} NP₂로 하다’로 바꿔쓰는 것이 가능하다.¹⁴⁾ 그러나 [자격]의 경우는 ‘*납시하며 늑기를 노인오로 하리라’와 같이 바꿔쓰기가 잘 되지 않는다.

12) 두드러지고 지속적인 속성과 그렇지 않은 속성 사이에는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이 기준만으라면 스펙트럼의 어느 쪽에는 [자격]인지 [방식]인지 혼동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7나)의 ‘빈손으로’와 같은 경우는 주어에게 큰 속성의 변화가 생겼으므로 상당히 두드러진 속성인 듯 보인다. 그러나 그가 앞으로도 계속 ‘빈손’일지, 잠시 ‘빈손’인지는 해당 문장만으로는 알기 어렵다. 확실한 것은 ‘돌아오’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만큼은 그가 ‘빈손’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므로, 이는 본질적인 속성인 [자격]임을 보증하지는 않지만 [방식]임을 보증한다. 요는, [자격]은 주어나 목적어 명사구의 속성과 본질적으로 관련되고 [방식]은 서술어의 행위나 상태의 묘사와 본질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이다.

13) NP₂가 ‘-기’로 나타난 (6나)를 빼고는 [자격]의 예문들은 모두 자연스러운데 이에 대해서는 2.3.2에서 다시 다룬다.

14) 중세한국어의 경우 ‘NP로 VP’가 ‘VP-오물 NP로 하다’로 바꿔쓰기가 가능한지 검토해 볼 수 있다.

2.3.2. [원인]

다음으로 [자격]과 혼동될 수 있는 것은 [원인]의 ‘로’이다.

(8) 나무가 태풍으로 쓰러졌다.

(8)에서 [원인]의 ‘로’는 주어나 목적어 명사구의 두드러진 속성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자격]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원인]의 경우 두 명사구가 ‘NP₁ (대상)이 NP₂ (원인)이다’의 의미 관계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부자연스럽다. *‘나무가 태풍이다’ 등을 도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8)의 ‘로’는 ‘로서’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원인]의 경우는 ‘NP₁이 NP₂로 VP’를 ‘NP₁이 VP-음을(기를) NP₂로 하다’로 바뀌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자격]의 ‘로’와 그 특성이 동일하다. (8)은 ‘나무가 쓰러짐을(쓰러지기를) 태풍으로 하였다’ 따위로 바뀌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어떤 문장에서 ‘로’의 의미가 [자격]인지 [원인]인지 혼동될 여지가 있다면 앞의 기준들, 즉 NP₂의 의미가 두드러진 속성인지 원인인지, ‘NP₁ (대상)이 NP₂이다’가 가능한지, ‘로’를 ‘로서’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등의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앞서 살펴본 (6나)의 예를 우리는 “명성”으로서의 [자격]으로 파악하였는데, 그 특성상 [원인]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 (6나)의 NP₂는 NP₁의 두드러진 속성으로 볼 수 있으며 ‘VP-기를 NP₂로 하다’와 같은 바뀌쓰기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남양 고을은 소금이 나기이다’와 같은 문장은 잘 성립하지 않으며, ‘로서’로의 대체도 잘 되지 않는다. ‘남양 고을은 곡창지대로 유명하다’와 같은 전형적인 “명성”의 [자격]의 경우와 문장 구조와 의미가 같다는 점에서 우선 [자격]으로 파악해 둔 것이나, 우리가 제시한 몇 가지 기준만으로 볼 때는 (6나)와 같은 문장은 [원인]으로도 볼 수 있어 난점이 있다.¹⁵⁾

2.3.3. [수단/방법/도구] 및 [기준]

[수단/방법/도구] 및 [기준]의 ‘로’ 또한 [자격]의 ‘로’와 혼동될 수 있다.

(9) {그런 것들을/그 사실을} 예로 {들자면/제시하자면/보여주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다.

(10) 그는 {진실을/그것이 사실임을} 새로운 예로 보여주었다.

(9)는 ‘NP₁이 NP₂를 NP₃(예)로 들다’ 구문으로, ‘들다’는 ‘예, 사례, 보기’와 같은 추상 명사를 논항으로 자주 취한다. (9)의 NP₂와 NP₃는 ‘{그런 것들, 그 사실}이 예이다’가 가능하여 ‘NP₂이 NP₃이다’의 의미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로’를 ‘로서’로 대체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들기를 예로 하였다’와 같은 바꿔쓰기가 불가능하다. (9)의 ‘로’는 [자격(결과자격)]을 나타낸다.

한편 (10)은 ‘예로 보여주다’가 사용되어 있다는 점에서 (9)의 ‘로’와 유사해 보이지만, 이는 [수단/방법/도구]의 ‘로’가 사용된 것으로 (9)의 ‘로’와는 다르다. 먼저 두 명사구 사이에는 ‘NP₂이 NP₃이다’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진실이 새로운 예이다’ 등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로’는 ‘로서’가 아닌, [수단/방법/도구]를 나타내는 ‘로써’로 대체할 수 있다. [수단]의 ‘로’는 ‘-을 이용하여’나 ‘-을 가지고’의 의미를 가지므로, ‘로써’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진실을/그것이 사실임을} 보여주기를 새로운 예로 하였다’와 같은 바꿔쓰기가 자연스럽다. 즉 ‘NP₁이 NP₂를 NP₃(예)로 보여주다’와 같은 구문은 NP₂와 ‘예’가 맺는 관계에 따라 ‘NP로’가 (9)와 같이 [자격]을 나타낼 수도, (10)과 같이 [수단]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다.¹⁶⁾

15) (6나)는 ‘소금이 나기로’를 ‘소금이 나는 곳’으로 바꾸면 우리가 제시한 [자격]의 기준이 모두 잘 성립한다. “속성”으로서의 [자격]도 어떤 ‘개체’로 표현될 때 [자격]으로서 잘 받아들여지는 듯하다.

3. 중세한국어의 [자격]의 ‘로’ 구문

3.1. 선행 연구 재검토

3장에서는 중세한국어 자료에서 [자격]을 나타내는 ‘로’ 구문을 검토한다. 본격적으로 ‘로’ 구문을 논함에 앞서, [자격]의 ‘로’ 구문을 다룬 선행 연구를 살피고 재검토가 필요한 예를 논의한다. [자격]의 ‘로’ 구문의 특성에 대해 상세히 논의한 연구로는 황국정(2009)가 참고된다. 황국정(2009)에서는 구문 구조의 통시적 변화를 논하면서, [자격]의 ‘로’ 논항이 형성되는 구문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자격]의 ‘로’ 논항이 형성되는 자동사로 ‘도라오다, 들다, 자피다’ 등을 들고, 이들은 모두 근대에 가서야 [자격]의 ‘로’ 논항을 구문에서 취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타동사로는 ‘피시다, 안치다, 들다(擧), 디다, 맞다(接), 묻다(埋), 언다, 잡다(守)’ 등을 들면서 ‘안치다’는 16세기에, ‘피시다’는 근대 후기 문헌에서 자격의 ‘로’ 논항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황국정(2009)에서 제시한 예를 아래에 보인다.

(11) 가. 송태좌 스신으로 위궤에 보낼시 닐너 골으사디 스신으로
 도라오면 경을 왕보의 벼슬을 주리라 흐시니(宋太祖遣使
 魏州告曰 使還與卿王溥官職)<중덕신편언해 중 17a>

나. 상궁 난이라 흐리 임진년의 시녀로 드러 의인 적 침실 드
 러 사더니<계축일기 하 11a>

- 16) 이 밖에, 앞서 <연세>에서 [자격]의 예로 제시한 “30년이라는 세월은 전체 인생으로 따질 때 짧은 것일 수도 있다.”가 있다. 우리는 이들을 2.1에서 [자격]이 아니라 [기준]으로 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전체 인생’은 둘 이상의 대상을 비교하는 [기준]인데 넓게는 [수단]에 포함될 수 있다. 이영경(2007, pp. 221-222)에서는 ‘NP로 나타난 비교의 기준에 대해, “으로’는 원래 [수단] 또는 [도구]의 의미를 가진 조사로 비교 구문에서의 ‘으로’ 보어는 비교 대상에 대해 비교 기준을 도구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비교의 기준을 “도구적 존재”로서 표현했다는 것이다.

- 다. 그 아버가 팔년 전에 도적으로 잡히고<독립신문 1896.4.28>
 (12) 조선 대군주 폐하를 상면으로 섬기며 쥬인으로 모시고 지낼
 도리들을 하고 외국 상면을 엮으려<독립신문 1897.9.7>

(11가)에서 ‘스신으로’는 ‘도라오-’의 [자격] 논항으로 제시되었으며, (11나), (11다)의 ‘시녀로’와 ‘도적으로’는 각각 ‘들-’과 ‘잡하-’의 논항, (12)의 ‘쥬인으로’는 ‘모시-’의 논항으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11가)의 경우 ‘스신으로’는 [자격]으로 보기 어렵다.¹⁷⁾ 오히려 바로 앞부분에 나타나는 ‘스신으로 위쥬예 보낼식’의 ‘스신으로’가 [자격(결과자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2)의 ‘상면으로 섬기며’의 ‘상면으로’는 [자격]의 논항으로 제시하지 않았는데 폐하를 상전의 [자격]으로서 섬기는 것이므로 ‘상면으로’ 역시 [자격(결과자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11가)의 예를 바탕으로 ‘도라오-’가 [자격]의 논항을 취할 수 있었는지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며, ‘보내-’와 ‘섬기-’는 [자격]의 ‘로’를 취하는 동사 목록에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동사들을 포함하여 [자격]의 ‘NP로’를 논항으로 취하는 서술어들의 예는 중세한국어에도 존재하는데, 이는 3.2에서 상술한다.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 [자격]의 ‘로’로 제시된 예들 중 일부는 [기준]을 나타내는 ‘NP로’로 볼 수 있는 듯하다. 아래에 그 예를 보인다.

- (13) 가. 만이레 벼슬 노푼 사람이 옛거든 비록 동향 사름이라두
벼슬로 안치라(若有異爵者於等 雖鄉人亦不以齒爲羅 [(雖同鄉人而爵異則以爵序坐)]<여씨화산 24a>
 나. 만이레 다른 손이 벼슬흔 사름이 옛거든 벼슬로 안치고

17) 송 태조가 王祐에게 하는 말의 일부로, 王祐가 사신의 일을 끝내고 (조정에) 돌아오면 王溥가 맡고 있는 관직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즉 ‘스신으로 도라오면’은 “사신의 {자격으로/상태로} 돌아오면”이 아니라 “사신의 지위로부터 돌아오면”의 의미이다.

[비록 벼슬이 이셔두 서러 곧튼 사름이어든 나호로 안치라](若有他客 有爵者 則坐以爵爲古 [雖有爵不妨於上下者猶以年次坐])<여씨화산 24a>

다. 만이레 특별이 청흐야 이바디흐거나 혹 마지어나 위뢰어나 전송이어든 다 위흐야 청흐 사름으로 위두손을 삼고 사돈잔척어든 사돈짓 사름으로 위두손을 사모되 다 나과 벼슬로 안치디 말라(若特請召於乃 或迎勞出餞於等 皆以專召者爲上客爲古 如婚禮 則媼家爲上客乎代 皆不以齒爲爵爲羅)<여씨화산 24a-b>

(13가)는 황국정(2009)에서 제시한 예로, ‘NP₁이 NP₂ (동향 사람)를 NP₃ (벼슬)로 안치.’ 구문이다. 사람을 앉히는 것을 벼슬을 기준으로 하여, 벼슬에 따라서 하라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이때 ‘벼슬’은 사람을 앉히는 하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 (13나), (13다)는 (13가)의 앞뒤로 이어지는 문장인데, 이를 참고하면 사람을 앉힘에 있어서 참고가 되는 [기준]이 ‘벼슬’, ‘나이’ 등임을 알 수 있다.¹⁸⁾

아래는 무라타 히로시(2005)에서 [자격]의 ‘로’로 제시한 예이다.

18) 본문에 제시한 예들 외에, 선행연구에서 자격의 ‘로’로 제시한 예들 중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삼촌 아촌아들 아촌썩른 다 내 흐 귀우니 난 거시라 내의 친흔 아들과 쏘과로 간겨기 업스니라<경민편언해 7b>[한재영(1996), p. 171에서 재인용].

‘NP₁ (삼촌 아촌아들 아촌썩른)이 NP₂ (내의 친흔 아들과 쏘)와로 곤흐.’와 유사한 일종의 동등비교구문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NP₁은 비교 대상, NP₂는 비교 기준을 나타내므로 ‘내의 친흔 아들과 쏘과로’는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다만 이 예문은 ‘로’의 [기준]의 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과로’의 [기준]의 용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영경(2007, pp. 220-221)에서 언급된 대로 ‘비교 기준’이 ‘NP로’나 ‘NP와로’로 나타나는 동등 비교 구문은 다른 조사로 나타나는 동등 비교 구문에 비해 매우 제한된 용례를 보인다.

(14) 王이 깃그샤 四百八 夫人을 다 브르샤 점고 고븍니로 여듬
각시를 굴히샤 比丘를 주어시닐<月釋 8:91a>

이를 만약 ‘NP₁ (王)이 NP₂ (여듬 각시)를 NP₃ (점고 고븍니)로 굴히-’가 어순이 재배치된 것으로 본다면 목적어의 [결과자격]의 ‘로’ 구문과 형식상 유사해지며, NP₃에 어떤 속성이 나타나 있어 언뜻 [자격]으로 파악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편으로는, 이때 NP₃의 속성(‘점고 곱-’)은 NP₂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이나 [수단]으로 볼 수도 있다.¹⁹⁾ [기준]을 포함한 [수단] 등을 [자격]과 비교하는 것은 중세한국어의 [자격]의 예들을 검토한 뒤 3.3에서 자세히 다룬다.

3.2. [자격]의 ‘로’ 구문

이 절에서는 중세한국어의 전형적인 [자격]의 ‘로’ 구문을 살핀다. 중세한국어 시기에 [자격]의 ‘로’의 예는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함께 사용되는 서술어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15) 가. 존재 및 거주 동사: 이시-/겨시-, 살-, 머물-, 붙-(브터시-),
 뜯니-, 놀-, 밥 먹-, 늣-
- 나. 이동 동사: 出家 ㅎ-/블러 들-/녀가-/도라오-
- 다. 接待 동사: 對하-, 대접 ㅎ-, 섬기-
- 라. 기타: 즐기-, (흔가지로) ㅎ-

먼저 존재와 관련된 동사가 ‘NP₁이 NP₂로 V’ 구문에 사용된 예를 아래에 보인다.

19) 혹은, 어순재배치가 되었다고 보지 않고 중세한국어의 ‘삼다’ 구문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는 3.3.3에서 다시 언급한다.

(16) NP₁이 NP₂로 {이시/겨시-}

가. 늘구믈 臨^ㅎ야셔 나그내로 외로이 이슈미 ㄱ장^ㅎ니 時節을 슬호니 會^ㅎ슴호미 드므도다(臨老羈孤極 傷時會合疎)<杜詩 8:48a>

나. 天尊으로 겨샤 侍病^ㅎ샤 소닐 가스매 다혀 겨샤되 목수를 머믈우들 못^ㅎ시니(夫以天尊衛疾而不能延齡 合掌在心而無救理 報盡數終無常對至)<月釋 10:15a>²⁰⁾

다. 신안니 누의 쳐녀로 잇는 줄 보고 그 은늘 주어 결속^ㅎ라^ㅎ니라(顧顏之妹處室 舉以佐其奩具)<二倫옥산 43a>

(16가)는 ‘羈孤’가 ‘나그내로 외로이 이시-’로 언해된 예로, “늙어서 나그네로 외로이 있음이 (이 괴로운 상황이) 끝이 없으니”로 해석된다. (16나)는 ‘以天尊’이 ‘天尊으로 겨샤’로 언해된 예로, “天尊으로서 (부왕의) 병을 돌보면서 모시어”로 해석된다. (16나)는 ‘겨샤’가 없어도 문제가 없는 문장이며, ‘로 겨샤’ 전체가 다시 자격의 ‘로’와 같이 해석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현희(1994, pp. 146-147)에서는 이 문장의 ‘天尊으로 겨샤’가 ‘天尊으로써’나 ‘天尊으로’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였다.²¹⁾ (16

20) 무라타 히로시(2005, p. 78)에서는 자격을 ‘동작의 성립에 직접적으로는 관여하지 않고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동작이 행해지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고 주체의 자격과 객체의 자격으로 나누어 논의하였으며 주체의 자격으로서 이 예를 들었다. 현대한국어의 ‘로셔’에 소급하는 ‘로셔’는 이와 같은 구조에서 나타난다.

21) 이와 같은 예를 제외한 ‘로 겨샤’는 그 전체가 ‘NP로부터’(출발점)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으로, ‘NP로셔’와 같은 의미이다.

가. 즉자히 七寶師子大床으로 겨샤 虛空에 ㅎ 多羅樹入 노퍽를 오르샤 니르샤되 ... 날굽 번 니르시고 도로 師子床에 너려 안즈샤 쏘 니르시니(卽從七寶師子大床上昇虛空高一多羅樹, 一反告言 ... 七反告言 : 從空中下坐師子床, 復告大眾) <釋詳 23:10b>

나. 그뻘 世尊이 三昧로 겨샤 즈늑즈늑니 니르샤 舍利弗드려 니르샤되(爾時世尊從三昧安詳而起) <月釋 11:95a>, <釋詳 13:37a>.

이현희(1994, pp. 146-147)에서는 (가)의 ‘七寶師子大床으로 겨샤’는 ‘七寶師子大床으로써’로, (나)의 ‘三昧로 겨샤’는 ‘三昧로셔’나 ‘三昧로’로 나타나도 좋을 문장

다)는 16세기에 나타난 [자격]의 ‘-로 이시-’의 유일한 예로, “(侯可는) 申顏의 누이가 처녀로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받은) 은을 그에게 주어 혼수에 쓰라고 하였다”로 해석된다. 이처럼 ‘이시-’ 및 ‘겨시-’와 함께 쓰인 ‘로’는 행위의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주어의 지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자격(본유자격)]이라 할 수 있다. ‘이시-’ 등이 항상 [자격]의 ‘로’를 논항으로 요구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16가)와 달리 (16나), (16다)의 ‘로’ 명사구는 생략되면 문장이 어색해진다.

다음은 거주와 관련된 서술어 ‘살-’, ‘머물-’ 등이 ‘NP₁이 NP₂로 V’ 구문에 사용된 예이다. 이들은 모두 『두시언해』의 예들로, NP₂에는 ‘나그내’ 및 ‘누른 머리’가 나타난다.

- (17) NP₁이 NP₂ (나그내)로 {살-/블-/머물-/밥 먹-/듣니-/놀-/늡-}
 가. 나그내로 사로매 사는 밧 지비 알픈 그르미오 뒤흔 밧 미터
 로다(客居所居堂 前江後山根)<杜詩 6:48b>
 나. 모든 도로혀 저물 주리 업도소니 자최는 오직 나그내로 브
터슈미 잇도다 (身無却少壯 迹有但羈栖)<杜詩 14:17b>
 다. 늘근 노미 그장 즐기들 못호노니 나그내로 머므러 이쇼매
 온 시르물 兼호라(老夫轉不樂 旅次兼百憂)<杜詩 10:21b>
 라. 나귀 타고 설흐나몬 히를 서웁 보미 와서 나그내로 밥 먹노
라(騎驢三十載 旅食京華春)<杜詩 19:2a>
 마. 나그내로 든노블 賢聖을 推求호노니 病이 오라 咎殃에 니
 르로라(羈旅推賢聖 沈痾抵咎殃)<杜詩 20:37a>
 바. 나그내로 노로매 萬里 어위니 凶問이 혼 히에 다 잇도다(羈

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한문에서도 출발점을 나타내는 ‘從’이 사용되었다. 이를 참조하면 (가)는 “즉시 七寶師子大床의 (위치에)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허공에 한 多羅樹의 높이를 오르시며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때 세존이 三昧에 계시다가 (그 경지로부터) 천천히 일어나시어 사리불에게 말씀하시기를”로 해석된다. (나)의 월인천강지곡 대응 부분은 ‘三昧로 니르샤’(其275)로 되어있다. 이때 ‘로’는 명백히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遊萬里關 凶問一年俱) <杜詩 24:58b>

사. 또 붉은 늑치 깃과 늑래 왜 나미 이시 면 곧 당 당 이 누 른 머 리 로 漁 樵 호 매 늘 구 리 라 (更有紅顏生羽翰 便應黃髮老漁樵)
<杜詩 9:41a>

(17가)~(17바)는 ‘客居’, ‘羈栖’, ‘旅次’, ‘旅食’, ‘羈旅’, ‘羈遊’ 등이 ‘나그내로 {살-/붙-/머물-/밥 먹-/듣니-/놀-}’ 등으로 언해되어 있는데, 대부분 “나그네로서 살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17사)는 ‘黃髮老漁樵’가 ‘누른 머리로 漁樵호매 늘-’로 언해된 예인데, “黃髮로(노인으로) 낚시하면서 늙으리라”의 뜻이다.²²⁾ 이처럼 15세기 『두시언해』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NP로’는 “거주하다, 생존하다, 생활하다”를 의미하는 서술어와 함께 쓰이면서, “NP의 자격으로 살다”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며 행위의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주어의 지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자격(본유자격)]이라 할 수 있다. (17)에서는 ‘나그내로’, ‘누른 머리로’가 없더라도 문장 성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17라)의 ‘나그내로 밥 먹-’과 같은 경우처럼 애초에 의도한 의미와 달라지게 되어 부자연스러운 경우도 생긴다.

다음으로 이동동사가 ‘NP₁이 NP₂로 (NP₃에) V’ 구문에 사용된 예를 살펴본다.

(18) NP₁이 NP₂로 (NP₃에) {出家호-/블러 들-/녀가-/도라오-}

가. 十六 아들님내 모다 童子로 出家호샤 聞法을 請호시니 부
테 드르시고 二萬劫을 디나샤 法華經을 니르시니<月釋 14:2b>
나. 補闕로 나조히 블러 드더니 柱史로 새배 녀가다가 쉬리로
다(補闕暮徵入 柱史晨征憩)<杜詩 22:33b>

22) 2.3.1의 (6가)에서 본 ‘신선이 되면 노인으로 낚시하며 늙으리라.’는 이 문장과 의미 · 통사적으로 유사한 경우이다. ‘黃髮’은 ‘노인’을 뜻하는 관용적 표현이다. “어떤 모습 및 차림으로 행동한다”는 맥락이라면 [방식]으로 보아야겠지만 이때의 ‘노인’은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만 유지하는 일시적인 속성이 아니므로 [자격]으로 보아야 한다.

다. 다른 나래 ㅁ슴 슬후믈 ㄱ장호믈 征伐호던 사르미 힐 썸로
도라울 저기나라(他日傷心極 征人白骨歸)<杜詩 16:51b>

(18가)는 ‘出嫁호-’, (18나)는 ‘블러 들-’과 ‘너가-’, (18다)는 ‘도라오-’가 사용된 예이다. (18가)의 ‘童子’, (18나)의 ‘補闕’과 ‘柱史’, (18다)의 ‘힐 썸’ 등은 서술어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주어의 지위나 속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자격(본유자격)]이라 할 수 있다. (18다)의 ‘힐 썸’은 유정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죽은 사람”의 비유적인 표현임을 고려하면, 이는 주어의 두드러진 속성으로 볼 수 있다.²³⁾ 제시된 예의 ‘NP로’는 문장에 나타나지 않아도 문장 성립이 자연스러운 편이다.²⁴⁾

다음으로 ‘對호-, 섬기-, 즐기-, 혼가지로 호-’ 등과 같은 타동사 혹은 타동 구성이 사용된 구문을 검토해 본다.

- (19) NP₁이 NP₂로 NP₃를 {對호-, 섬기-, 즐기-, 혼가지로 호-}
- 가. 時俗으란 綿谷이 다른 디 브텻고 나그내로 雪山이 외로외
 니를 對호얏노라(俗依蘇谷異 客對雪山孤)<杜詩 24:60a>
- 나. 그딧 직조로써 趙孟[도양즈 | 라]을 신하로 섬기면 반드시
 갓가이 괴임을 어들이니(以子之才로 臣事趙孟호면 必得近
 幸호리니)<小學 4:32a>²⁵⁾
- 다. 호믈며 썸 호웃 모믈로 遠離行 즐기시느니썸녀(況復單己로
樂遠離行호시느니썸녀)<法華 5:85a>
- 라. 직조 업슨 모믈로 衰職 김소오믈 혼가지로 호니(不才同補
衰)<杜詩 20:43a>

23) NP₁과 NP₂ 사이에는 “征伐하던 사람이 죽은 사람이다”와 같은 의미 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²³⁾돌아옴을 죽은 사람으로 하다”와 같은 변형은 매우 어색한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방식]과의 비교를 통해 더 자세히 다룬다.

24) 황국정(2009)는 이런 경우들도 [자격]의 ‘로’가 서술어의 “논항”이라고 하였으나, 이들 이동동사가 [자격]의 명사구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25) 해당 『번역소학』 부분은 발견되지 않은 卷五의 부분이라서 확인할 수 없다.

현대한국어에서 타동 구문의 ‘로’는 대부분 목적어의 자격을 나타내는 데에 비해, (19)의 ‘로’는 주어의 자격을 나타내고 있다. (19가)는 ‘對_하-’가 사용된 예로, “(내가) 나그네의 지위로서 외로운 설산을 마주하고 있다”로 해석될 수 있다. (19나)는 ‘섬기-’가 사용된 예이며 “그대의 재주를 가지고, (그대가) 신하로서 조맹을 섬긴다면 반드시 가까이에서 아낌을 받을 것이니”로 해석된다. (19다)는 심리동사 ‘즐기-’가 사용된 예로,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이) 하물며 또 홀몸으로 遠離行을 즐긴다”로 해석된다. (19라)는 ‘_하가지로 _하-’ 전체가 타동 구성을 이루어 “재주 없는 몸으로서 곤직 기움(임금의 관직에 나아감)을 함께 하니”로 해석할 수 있다. (19나)의 ‘NP로’는 생략되어도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데 반해, ‘NP로’가 주어 자리에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19가), (19다), (19라)는 상대적으로 생략이 덜 자연스럽다.

우리는 앞서 ‘NP로’가 [자격] 중에서도 [결과자격]의 의미, 즉 어떠한 행위의 결과로 신분이나 지위를 획득하게 됨을 나타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예는 15세기에 한 예가 나타나며 16세기에 몇 예가 더 나타난다. 아래에 그 예를 제시한다.

(20) NP₁이 NP₂를 NP₃로 {섬기-/되접_하-/_하-}

가. 念_하흔든 그디는 이대 스승으로 섬겨 헛 치위에 넷 가지를 堅守_하야시라(念子善師事 歲寒守舊柯)<杜詩 22:48b>

나. 나히 즈라미 내게서 빅_하거든 아비로 섬기고 열히 되디어 든 형으로 섬기고 다숫 히 되디어든 엇게 굴와 가되 저기 미조차 갈 디니라(年長以倍則父事之_하고 十年以長則兄事之_하고 五年以長則肩隨之니라)<鱣小 3:25a>

나'. 나히 즈람이 뻘 뵈_하거든 아비로 섬기고 열히로뻘 즈라거 든 뉘_하로 섬기고 다숫 히로뻘 즈라거든 엇게로 조출디니 <小學 2:57b>

다. 待賓_지[어딘 사람을 손으로 되접_하는 집이라]와 吏師_지[다

슬임을 아라 관원의 스승될 사름을 드리는 집이라]를 두며
(及置待賓吏師齋^호며 立觀光法^호니 如是者 | 亦數十條 |
러라)<小學 6:15b>

라. 날은빛 天下를 平히 함이 그 나라를 다스림에 잇다 함이 上이 늘근이를 늘근이로 ㅎ음애 民이 孝애 興^호며 上이 얼운을 얼운으로 ㅎ음애 民이 弟애 興^호며 上이 孤를 恤^호며 民이 倍티 아니^호느니(所謂平天下 | 在治其國者는 上이 老老而民이 興孝^호며 上이 長長而民이 興弟^호며 上이 恤孤而民이 不倍^호느니)<大學 19b>

(20)은 ‘NP₁이 NP₂를 NP₃로 {섬기-/되접^호-/ㅎ-}’의 예이다. 행위자가 어떤 대상을 섬기거나 대접하는 행위의 결과로 인해, 그 대상이 ‘스승’, ‘아버지’, ‘형’, ‘손’, ‘늘근이’, ‘얼운’ 등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결과자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NP로’의 예는 『두시언해』에 처음 보이며 16세기의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의 대응 부분에도 나타난다. (20라)의 ‘ㅎ-’는 ‘되접^호-’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한편 (20가)보다는 (20나), (20다)의 ‘NP로’의 생략이 좀 더 어색한 것으로 보이고 (20라)의 경우 생략이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존재 및 거주와 관련된 동사, 이동 동사, 接待 동사 등과 함께 사용된 [자격]의 ‘로’ 구문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세 한국어에 나타난 자격의 ‘NP로’의 의미 및 특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1>에서 살펴본 ‘로’의 여러 의미 중에서 중세한국어 시기에는 가장 전형성이 높은 유형의 자격만 나타남이 확인된다.²⁶⁾ 15세기에는 [본유자격]이 나타나며 [결과자격]은 대체로 16세기부터 나타난다.

26) 다음 절에서 살펴볼 (23)과 같은 예는 “명성”의 [자격]으로 우선 파악해 둔 것이지만 [원인]으로 볼 여지도 있어 제외한다.

〈표 2〉 중세한국어 [자격]의 ‘로’의 의미와 특징

특성 유형	자격 명사구의 의미	대상 명사구와 자격 명사구의 의미 관계	대상 명사구의 유정성	자격 명사구의 유정성	‘로서’ 와의 대치
①	주어나 목적어의 신분 및 지위 [본유자격] ²⁷⁾ : 15세기~, [결과자격]: 16세기~	A[대상]는 B[자격]이다	유정	유정	가능

3.3. [자격]과 혼동될 수 있는 ‘로’ 구문

3.3.1. [방식]

2.3에서 다룬 것과 같이 [자격]은 종종 [방식]과 혼동될 여지가 있다. 중세한국어의 경우를 보자.

(21) 제 아드를 글 날기라 보내오 盧操를 라귀 모라 미조차 가라
 햏야든 종의 樣子로 牽馬 햏고 채 자바 들니더라(張遣其子讀
 書 命操策驢隨之 操卽執鞭引繩如僮僕)<三綱런던孝 27>

앞에서 제시한 여러 기준에 따라 (21)의 문장이 [자격]인지 [방식]인지 판단해 볼 수 있다. ‘盧操(NP₁)이 종의 樣子(NP₂)이라’는 성립하며, NP₂가 주어 명사구의 속성인 것은 [자격]과 공유하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의 樣子’는 주어의 본질적이고 두드러진 속성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동안 가지는 일시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방식]의 ‘로’ 구문은 중세한국어의 경우에는 ‘NP₁이 VP-오물 NP₂로 햏다’와 같은 바꿔쓰기가 가능하다. ‘(盧操 |) 牽馬 햏고 채 자바 들노를 종의 樣子로 햏더라’와 같은 바꿔쓰기가 가능했을 것으

27) (20가)의 [결과자격]의 예문과 같이 15세기에 [결과자격]의 ‘로’가 아주 없지는 않
 지만 대체의 경향은 [본유자격]이다.

(23)은 2.3의 (6나)에서 검토한 예문과 유사한 문장이다. (23)과 (6나)의 경우처럼 NP₂가 ‘-옵’, ‘-기’ 등의 명사절로 표현된 경우에는 두 명사구가 ‘NP₁이 NP₂이다’의 관계를 가지거나, ‘로’를 ‘로서’로 대체하는 것이 잘 되지 않는다. 두드러진 속성인 NP₂가 개체, 즉 ‘효도훈 子息’과 같이 ‘-(으)나 N’으로 표현되면 더욱 분명히 [자격]으로 받아들여질 듯하나, (23)과 (6나)의 경우는 여전히 판단이 어렵다. 우리가 제시한 기준만을 놓고 볼 때는 [원인]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지만 “명성”의 [자격]의 ‘로’ 구문과 구조와 의미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자격]으로 판단해 둔 것이다. (23)의 한문에 나타난 ‘以NV’ 구조 역시 자격으로도, 원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²⁸⁾ (24)는 ‘NV’ 형식으로 ‘以’와 같은 허사조차 쓰이지 않은 경우이다. 다만, (24)는 (23)이나 (6나)와 달리 NP₂(文章 ㅎ기)가 NP₁(일흠)의 두드러지고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격]의 성질을 가지지 못한다. “명성”의 ‘로’ 구문이지만 분명히 [자격]의 ‘로’ 구문의 속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이다. 후행절 ‘늘근 病으로 말리로다’ 부분의 ‘늘근 病으로’는 분명히 [원인]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두 구의 대응 관계를 고려하여도 (24)의 경우는 [원인]으로 보는 쪽이 좋을 듯하다.

3.3.3. [수단/방법/도구] 및 [기준]

일반적으로 보통의 [도구]는 주어 명사구나 목적어 명사구의 [자격]과 관련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자격]과 혼동될 일이 적다고 볼 수 있다.

- (25) 縣令은 ㄱ을 위두 관워니니 만이레 부형 섬기는 도리로 섬겨
(令은 是邑之長이니 若能以事父兄之道 事之 ㅎ야) <麟小 7:25b>

28) 한문에 ‘以NV’가 사용된 [자격]의 예로는 ‘天尊으로 겨샤 侍病 ㅎ사(夫以天尊衛疾)’ <月釋 10:15a>가 있다.

(25)는 앞서 본 (20가), (20나), (20나') 등과 달리 'NP로 첨가'가 사용되었지만, 현령을 부형 첨가는 도리로 첨긴다는 의미이며 이는 [방법]에 해당한다. 목적어 NP₂ (縣令)의 속성과 'NP₃로'의 NP₃ (부형 첨기는 도리)가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러나 2.3.3에서 본 것과 같이 간혹 주어 명사구나 목적어 명사구와 그 뒤의 'NP로'는 그 관계에 따라 [자격]으로도, [수단]으로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3.1에서 선행 연구의 예문을 검토하며 중세한국어의 [기준]의 '로'의 예를 본 바 있다. (14)의 '王이 깃그샤 四百八 夫人올 다 브르샤 점고 고븍니로 여덥 각시를 굴희샤 比丘를 주어시닐'는 선행 연구에서 [자격]으로 파악되었다. 앞서 'NP₁ (王)이 NP₂ (여덥 각시)를 NP₃ (점고 고븍니)로 굴희-'가 어순이 재배치된 것으로 본다면, 언뜻 목적어의 [결과자격]의 구문과 형식상 유사해 보이고 NP₃의 의미도 NP₂의 속성과 같이 보이므로²⁹⁾ [자격]으로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다만 중세한국어에서 '굴희-' 바로 앞에 목적어가 아니라 'NP로'가 오는 예문이 드물다는 점에서³⁰⁾ 이 문장이 [결과자격] 구문에서 어순재배치된 것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또 '로'는 '로서'보다는 '로써'로 대체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듯 보이며, '여덥 각시를 굴희요물 점고 고븍니로 흐-'가 매우 자연스럽다. 이 경우 '로'는 [수단/방법/도구]에 속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³¹⁾

29) 'NP₂ (여덥 각시)이 NP₃ (점고 고븍니)이라'가 불가능하지 않은 것은 [자격]과 유사하나 대상 NP의 속성과 본질적으로는 무관한 [방식]의 '로'도 맥락에 따라 우연히 대상 NP의 속성과 관련되기도 하고 이때 'NP (대상)이 NP (방식)이라'가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이 [기준] 구문도 우연한 경우로 볼 수 있다.

30) 'NP로'가 '굴희-' 바로 앞에 온 경우에도 [수단], [대상],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로'가 대다수인 듯 보인다.

31) 결국 'NP로[수단] NP를[대상] V'으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현대한국어에 와서 '스승이 어진 이들을[대상] 제자로[자격] 삼았다'와 같은 논항 구조를 가지는 '삼-'는 중세한국어 시기에는 'NP₁ (王)이 NP₂ (점고 고븍니)로[수단] NP₃ (여덥 각시)를 [대상] 삼-'와 같은 논항 구조를 가졌다. 이 문장의 'NP로 NP를' 역시 "[수단]-[대

4. [자격]의 ‘로’와 관련된 구문

4장에서는 [자격]의 ‘로’의 구문과 관련되어 그 연장선에서 볼 만한 몇 가지 구문을 살핀다. 먼저 “판단”과 관련된 ‘로’ 구문이다. ‘보다, 판단하다’ 등과 같은 평가 동사는 ‘로’를 논항으로 취하는데, 이 ‘로’가 자격과 관련되어 논의되기도 하였다. 홍재성 외(2002, p. 241)에서는 “결과상태역”을 하나의 의미역으로 제시하면서, 평가 동사가 요구하는 논항이 인물의 자격과 관련되어 있음을 언급하였다.³²⁾ 평가 동사는 세 가지 면에서 [자격]의 ‘로’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첫째, 이들은 모두 ‘NP₁이 NP₂를 NP₃로 VP’의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자격]의 ‘로’와 구문 구조가 동일하다. 둘째, [자격]의 일부 유형((1)②㉠ “명칭”)이 ‘로’ 대신 ‘라고’를 취할 수 있는데 평가 동사들 또한 그러하다. ‘나는 그가 관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 ‘나는 그의 말을 진담이라고 판단하였다’ 등이 가능한 것이다. 셋째, ‘NP₁이 NP₂를 NP₃로 VP’는 [자격]의 ‘로’와 마찬가지로 ‘VP-음을 NP₃로 하다’로 바꿔쓰기가 불가능하다. “?그의 말을 판단함을 진담으로 하다’ 등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평가 동사와 함께 나타나는 ‘로’를 [자격]의 ‘로’와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격]의 ‘로’는 대상 명사구가 실제로 어떠한 지위 및 신분, 속성 등을 가지게 되는 것임에 비해, ‘보다, 판단하다, 생각하다’ 등과 함께 나타나는 ‘로’는 특정 경험주의 인지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대상 명사구의 [자격](지위

상)의 관계로 보이므로 ‘삼’의 논항 구조와 결국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32) 결과상태(FNS): [정의] 동사가 인물의 자격, 또는 물질의 성질이나 용도의 변화를 기본 의미로 가질 때 그러한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논항. [세부지침] ① 평가 동사류(보다, 판단하다, 생각하다, 간주하다, 평가하다, 여기다, 삼다, 알다)의 N2 논항과, 아울러 물리·화학적 변화의 결과를 표현하는 논항을 모두 FNS로 기술한다. (예) 골키퍼가 김병지로 바뀌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선생님은 철수를 상위로 삼으셨다. 우리 업체는 인삼을 당의정으로 가공한다[홍재성 외(2002), p. 241].

및 신분, 속성)이 실제로 바뀐다고 볼 수 없다. ‘그는 철수를 사위감으로 판단하였다’에서 ‘철수’는 ‘사위’의 신분을 실제로 얻었다고 할 수 없다.³³⁾ 따라서 평가 동사가 요구하는 ‘로’ 논항은 [자격]의 ‘로’와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 평가 동사들이 취하는 ‘로’에 대해 <연세>에서는 ‘판단’의 의미로 처리하고 있음이 참조된다.³⁴⁾

이처럼 ‘판단’의 ‘로’는 어떤 대상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자격을 획득하거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 경험주의 인지 범위 내에서만 어떤 대상이 특정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³⁵⁾ 즉, ‘평가 동사’류가 보이는 ‘로’ 구문 혹은 ‘판단’의 ‘로’ 구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문은 [자격] 특히 [결과자격]의 ‘로’와 의미·통사적으로 유사하며 [결과자격]의 ‘로’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문장 연결”의 기능을 하는 ‘로’이다. 이는 최현배(1929, 1978)에서 “사실상 그 지위, 신분, 자격을 인정하는 것”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되어서, ……인데”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33) 각주 32)의 홍재성 외(2002, p. 241)에서 예문으로 제시된 ‘철수를 사위로 삼다’와 평가 동사류는 차이를 보인다. ‘삼다’의 경우 [결과자격]의 ‘로’ 구문을 가지며 ‘철수’는 ‘사위’로서의 지위를 실제로 가지게 되고, 철수의 속성 또한 변화하지만 평가 동사류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표준>에 제시된 ‘삼다’의 뜻 중에는 “(2) 무엇을 무엇이 되게 하거나 여기다(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다). (3) (주로 ‘삼아’ 꼴로 쓰여) 무엇을 무엇으로 가정하다(그녀는 딸을 친구 삼아 이야기하곤 한다).”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평가 동사류와 유사한 의미도 있으나 이 경우도 ‘로’가 ‘라고’로 대체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평가 동사로 제시된 동사들과는 이질적이다.

34) <연세> 로: VI. ‘판단’을 뜻함. 참고: ‘밝혀지다/치다/손꼽다’류로 표현되는 서술어와 함께 쓰임 ① [판단의 결과를 나타내는 말에 붙어] ‘~이라고, ~의 자격으로 셈하여/간주하여’의 뜻을 나타냄. (예) 나는 그의 말을 진담으로 알아들었다. ② [그렇게 간주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 ‘~이라고’의 뜻을 나타냄. 참고: ‘치다/여기다/이해하다’와 같이 판단을 뜻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서술어와 함께 쓰임. (예) 그가 관대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5) 이는 우리가 <표 1>에서 기술하였던 [자격]의 의미 중 세 번째 의미, 즉 “특정 경험주에게만 두드러진 속성”[2.1에서 기술된 (1③)의 의미]를 연상시킨다.

같은 구문은 중세한국어 시기에 보인다.

- (26) 나는 본디 나그내 신하로 堯舜의 다스리심을 만나 벼스른 重
 코 직죄 츠디 못흐 디라(我本羈旅臣으로 遭逢堯舜理호야 位
 重才不充이라)<小學 5:25a>[한재영(1996), p. 223에서 재인용]
 cf. 나는 본디 나그내로브터 왔는 臣下로서 堯舜그티 다스리샤
 들 맛나스와 벼스른 놓고 직죄 맞디 못호야<飜小 6:27a>
- (27) 匹夫로 天下를 둔 者는 德이 반드시 舜禹근고 쏘 天子 | 薦
 호리 인느니(匹夫而有天下者는 德必若舜禹 而又有天子 | 薦
 之者 | 니)<맹자언해 9:26a>[하귀녀(1994), p. 100에서 재인용]
- (28) 너는 虔州 | 사름으로 開封 戶籍의 일홈 올유려 호니 님금을
 섬기고져 호디 몬져 님금 소규미 올호냐 출하리 두셔 히를
 므늘 썩니언당 가디 못홀 거시라(汝는 虔州人而貫開封戶籍
 호느니 欲求事君而先欺君이 可乎아 寧遲緩數年이언당 不可
 行也 | 니라)<飜小 9:49b-50a>
 cf. 네 虔州사 사름으로서 開封戶籍에 드리면 (...)<小學 6:45b>

(26)~(28)의 ‘로’는 [본유자격]으로도, 혹은 문장 연결의 기능을 하는 것으
 로도 볼 수 있다. (26), (28)은 동일한 구성이 『번역소학』과 『소학언해』
 에서는 ‘로셔’로 나타남이 확인된다.³⁶⁾ 이들을 문장 연결의 ‘로’로 해석
 한다면 “나는 본래 나그네 신하인데, 요순의 다스리심을 만나...” 등으로
 해석된다. ‘로’를 [자격]으로 해석하는 것과 의미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27), (28)의 경우 한문 원문을 보아도 ‘匹夫而’, ‘虔州人而’의 ‘而’는 ‘以’

36) 본고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로셔’ 또한 [자격]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로셔’가 [자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방식은 이지영(2013)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이지영(2013, pp. 160-162)에서는 [자격]을 나타내는 ‘로’ 및 ‘로셔’의 예를 다루며, 자격의 ‘로셔’가 ‘로’로 통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로셔’가 [자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는 ‘사르므로셔 羊을 머거든’<楞嚴 4:30a> 등이 있다. 이지영(2013)에서는 ‘로셔’가 드러내는 [자격]의 의미를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의 본질과 관련된 의미”로 보았다.

대신 사용되어 ‘N以’와 같이 [자격]으로 볼 수도 있고, 문장 연결로서 일종의 순접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번역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사 생략 구성”의 ‘로’의 존재에 대한 언급을 덧붙여 둔다. 임홍빈(2018, 9.5.3)에서는 ‘-을 선생님이로, -을 아내로, -을 명목으로, -을 마지막으로’ 등과 같이 ‘NP₁을 NP₂로’의 구성을 다루며³⁷⁾ 이 구성이 사용된 문장의 ‘로’가 결국은 “방법”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고 한 언급에 주목하고자 한다. ‘-을 선생님이로’는 앞서 2.2의 (5나)에서 제시했던 ‘학생들은 철수를 지도교사로 행사장에 갔다’의 경우와 같다. 임홍빈(2018)에서는 ‘철수를 지도교사로 하여’가 내포된 종속절의 문장에서 ‘하여’가 생략된 것이고, ‘하여’가 있을 때는 ‘지도교사로’가 “자격격(목적 보어) 조사”를 갖지만 ‘하여’가 생략되면서 ‘지도교사로’와 같은 것은 “방법을 나타내는 조격 조사”로서 기능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고의 입장은 ‘NP로’가 자격으로서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며, ‘지도교사로’만이 아니라 ‘철수를 지도교사로 (하여) 전체가 행사장에 가다’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방법]의 ‘NP로’는 대개 생략이 쉬운데, 2.2에서 보았던 것처럼 ‘철수를 지도교사로’ 전체가 생략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철수를’이 있을 때는 ‘지도교사로’만 생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철수를 지도교사로 하여’에서 ‘지도교사로’는 필수적인 [결과자격]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여’가 생략된 ‘NP₂를 NP₃로’가 모두 [방법]인 것도 아니다. NP₃의 의미에 따라 이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도착점], [출발점]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NP를 이유로’와 ‘NP를 기준으로’는 그 전체가 각각 [이유]와 [기준]이 될 것이다. ‘하여’가 복원된 ‘NP를 이유로

37) 임홍빈(2018, 9.5.3)에서는 이러한 “동사 생략 구성”이 명사의 성격이 개방적이라는 점, ‘NP₁을 NP₂로’ 사이에 관형어나 부사어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문법적 요소로 볼 수 없다고 하며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 임근석(2010)에서 ‘조사적 연어’로 다룬 ‘-을 계기로, -을 고비로, -을 전제로, -을 기준으로, -을 빌미로, -을 이유로’ 등과 관련된 논의이다.

하여’, ‘NP를 기준으로 하여’ 역시 각각 [이유]와 [기준]이 되나, 그 절 내부에서 ‘NP로’는 모두 [결과자격]이 된다. (5나)와 같은 ‘NP₂를 NP₃로’는 ‘하여’가 복원이 잘 되는데, 이들 ‘NP를 NP로’는 절에서 ‘하여’가 생략되어 남은 구성으로, ‘작은 문장’으로서 삽입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³⁸⁾

5.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자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로’ 구문에 대해 논의하였다. [자격]의 ‘로’는 주어나 목적어의 신분 및 지위, 명성, 명칭, 두드러진 속성 등을 나타내며, 대상 명사구와 자격 명사구 사이에는 ‘A는 B이다’의 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대상 명사구와 자격 명사구에는 유정물·무정물이 모두 나타날 수 있으며, ‘로서’와의 대치가 비교적 자유롭다. 중세한국어 자료에서는 주어나 목적어의 ‘신분 및 지위’를 나타내는 가장 전형적인 유형의 [자격]의 ‘로’가 주로 나타났다. 15세기부터 [본유자격]이 나타났으며 주로 16세기부터 [결과자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자격]과 혼동될 수 있는 ‘로’ 구문을 [방식], [원인], [수단/방법/도구] 및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자격]의 ‘로’와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구문도 함께 검토하였다.

[자격]의 ‘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의 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본고는 중세한국어의 특성에만 주목하여 근대한국어의 자료는 검토하지 못하였는데, 근대한국어 자료에 나타나는 [자격]

38) 본고는 중세한국어의 (26)~(28)의 예들에 대해서까지 ‘이시’와 같은 동사가 생략되었다거나 복원 가능하다고거나 하는 논의를 하지는 않는다. (26)~(28)의 예들은 여전히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겠지만, ‘NP로’ 자체가 마치 삽입된 주석문처럼 ‘작은 문장’으로 볼 가능성도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의 ‘로’ 또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로’가 이루는 구문의 변화 과정이 기술될 수 있을 것이다. 소략하게나마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자격]의 ‘로’의 연장선에 있는 구문들도 더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격]의 ‘로’와 다른 의미를 가지는 ‘로’를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자 료】

이희자·이종희(2010), 『어미·조사 사전(한국어학습 전문가용)』, 서울: 한국문화사.

연세한국어 사전(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https://ilis.yonsei.ac.kr/ysdic>.

【논 저】

무라타 히로시(2005), 「15세기 한국어의 <로>격에 대하여: 단어결합론의 관점에서」, 『15세기 한국어의 단어결합론 연구』, pp. 52-92.

엄정호(1993), 「서술적 조사 ‘로’와 보문자 ‘-라고’의 상관성」, 『국어국문학』 13,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pp. 59-78.

이선웅(2012),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서울: 월인.

이영경(2007), 『중세국어 형용사 구문 연구』, 파주: 태학사.

이지영(2013), 「‘-로시’ 구문의 통시적 변화」, 『국어국문학』 165, 국어국문학회, pp. 151-182.

이현희(1994), 『中世國語 構文研究』, 서울: 신구출판사.

임근석(2010), 『한국어 연어 연구』, 서울: 월인.

임홍빈(2018), 『한국어의 재구조화』 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구총서 42-2,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최현배(1929, 1978),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하귀녀(1994), 「中世國語 세자리 敍述語 構文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귀녀(2005), 「국어 보조사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재영(1996), 『十六世紀 國語 構文의 構造 研究』, 서울: 신구문화사.

홍재성 외(2002),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개발 분과 연구보고서』,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

황국정(2009), 『국어 동사 구문구조의 통시적 연구』, 서울: 제이앤씨.

원고 접수일: 2019년 4월 22일

심사 완료일: 2019년 6월 3일

게재 확정일: 2019년 6월 4일

ABSTRACT

A Study on the ‘ro’ Constructions Expressing
Qualification in Middle Korean

Jeong, Hyerin* · Baek, Chaew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characteristics of ‘NP-ro’, which expresses the meaning of [qualification]. ‘ro’ is a remarkable particle in that the meanings expressed in the sentences vary widely according to the accompanying predicates. In this paper, we presented four major characteristics of ‘NP-ro’, which have the meaning of [qualification], and discuss the characteristics of the ‘NP-ro’ constructions in Middle Korean. We also examined the constructions that can be discussed in relation to [qualification]. Through this discussion, it was possible to fill in the blanks of the grammatical history on the characteristics of ‘ro’.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arrive at a 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usage of ‘ro’.

* Researche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cture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